

#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마련

### 전북대, 국립대 최초... 20Km/h 속도제한·보호장구 의무화 등 안전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국 국립대 중 최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이날 공포·시행된다.

전북대는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지난 22일 학

회의를 통해 규정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차량 및 이륜차 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금지토록 했으며, 거치 장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교내 규정 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

련키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발생하는 대학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원식 횡단보도 : 보행자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는 시설.



익산부송중학교 학부모회는 '부송밥상-어머니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부터 반찬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식단짜기, 아이들 식성·기호 고려”

### 익산부송중 학부모회 '부송밥상' 3년간 조손가정 등 전달

익산부송중학교 학부모회 활동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송밥상-어머니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부터 반찬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조손가정과 부자가정 등 반찬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매월 두 차례씩 직접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는 것.

처음에는 단순히 '학부모회 활동으로 관할했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원들의 정성과 열정이 커져갔다. 반찬을 전해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맛있게 먹었다'는 말을 들으며 나누는 기쁨, 봉사 매력에 알게 된 것이다.

부송밥상은 식단 짜는 일에서부터 장보기, 조리하기, 배달까지 김

서목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13명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한다. 그렇기에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나 식성, 기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오이무침·가지볶음·멸치조림·계란말이 등 밑반찬뿐만 아니라 닭볶음탕, 부대찌개, 돼지갈비찜 등 메인 메뉴를 한 가지씩 곁들여 풍성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간이 지남수록 어머니들의 노하루가 쌓이면서 반찬의 양과 질도 한층 좋아졌다.

김중석 교장은 "3년 동안 꾸준히 부송밥상 활동을 지속해 준 학부모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코로나 블루' 극복 치유 프로그램 마련

### 전북대 LINC+사업단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희호)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단은 최근 '엔택트 치유 프로그램(부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프 로젝트를 모으라)'을 기획, 지난 24일 첫 선을 보였다.

첫 프로그램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플러워 리스 만들기'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교육 시작 전에 우편을 통해 재료를 전달받고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강사 및 학생들과 소통했다.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희호)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목을 끌고 있다.

LINC+사업단이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재학생들의 심리적 방어를 통한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사업단은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 2월 중에도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매번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 학생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고영호 단장은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예전 같으면 한창 들떠 있을 시기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함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염병 의식되면 '1339'로**

## 호원대,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 협약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는 29일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세계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진로선택을 돕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진로정보 관련 워크넷 활용 활성화, 진로교육, 진로지도상담,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 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영 진로심리상담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교는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재학생의 진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양 기관의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후원물품 지원**

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의 남다른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달 관내 모중학교

로부터 위기학생에 대한 사연을 접하고 곧바로 해당 학교와 함께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 해당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해당 학생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읍교육지원청 직원 20명은 지난 달 25일 해당 학생의 가정을 찾아 노후된 벽지와 장판, 침대, 옷장, 전등등을 교체하고 이불과 옷가지 등을 세탁해 전달했다. 또 직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130만원의 성금과 지역의 청소년 관련 단체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총 280여만원의 후원물품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14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관내 교육행정 일 반직 협의회에서 2백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 농어촌학생 등하굣길 지원

### 전북교육청-농협 전북본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성일)와 공동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등하굣길 지원 사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촌 어린이 희망버스 지원사업'을 통해 농협 전북본부로부터 올해 1억9640여만 원(9개 시군, 21교)의 분담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도교육청과 농협 전북본부가 2019년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1년 까지 3년간 '농촌 어린이 희망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농촌 어린이

희망버스 지원사업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비전 확산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역 학생 통학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협이 매년 총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2019년부터 3년간 11개 시·군 초등학교 통학버스 83대 구입·교체 비용으로 총 7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과 농협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농촌 어린이 희망버스 지원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